떠나자…재충전과 추억을 위해

◇가을철 MT 이곳으로 가자

박 종 운

〈경향신문 생활과학부 기자〉

가온이 떨어지면서 단풍으로 예쁘게 단장한 산이 손짓한다. 붉고 노랗게 물든 이웃다운 조국산하를 돌며 늦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때이다. 지난 여름의 무더위와 가뭄탓에 더욱 색조를 뽐내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슴 가득 담아보자.

MT장소는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약2시간 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하다.

여자과 현장 답사를 할 여건이 안되므로 다른 사람이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움을 추구한다. 다행히 좋은 장소를 발견하면 호뭇하나 입에 맞는 떡이 없듯이 헤매게된다. 그래서 인지 통신망에도 여러 곳에서 MT장소를 추천해달라는 글이 보이는데 이를 보면서 동지애를 느낀다.

조상의 얼이 서려있는 고적지, 종교시설, 민박촌, 병슴지등 이름난 곳은 많다. 그러나 교통과 주위환경, 숙박여건등이 마땅한 곳은 찾기 어렵다. 여기저기 알아보아야한다. 통신망에는 철도청에서 제공하는 열차시간표와 동행 및 수행에서 제공하는 전국에 걸친 민박안내가 소개돼 방안에서도 전국방방곡곡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이밖에도 해외여행정보나 박람회 등에 대한 정보까지 실려있어 MT나 들이에는 안성맞춤이다.

조국분단을 되새기며 71년 완공된 43㎞의 4차선인 통일로를 거쳐 임진각에 이르는 길을 자전거로 달려보자. 봄에는 개나리,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절경이다. 휴일이면 드라이브를 즐기려는 젊은이들의 자전거 행렬도 이어진다.

서울에서 불광동, 구파발을 거쳐 파주, 문산으로 이어지는 통일로는 목포→서울→신의주를 잇는 한반도의 대동맥국도 1번 도로의 한 구간인데 임진각 자유의 다리 앞에서 끊어져 있다. 허리는 동강나서 오도가도 못하는데 하늘에는 어느덧 철새가 날갯짓한다.

통일로 주변의 명소로는 이선생사당인 파주군 파평면의 자운서원과 황희정승이 말년을 보낸 문산읍의 반구정, 광탄면 청령에는 막걸리가 유명한 유명산이 있다. 서울 상봉동에서 직행으로 가면 된다. 유명산 약수로 빚은 막걸리는 일품이다.

불광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일영이나 장흥을 가도 민박 집이 많이 있다.

경기 남부지역의 용인군 외사면 석천리 황석마을은 황금주씨(0335-33-5264)집에서 70평이 민박을 할 수 있다. 이밖에 여주군 산북면 하품리에는 대대로 빈박촌을 하고 있는 박성란씨(0337-83-0154)댁을 찾아가면 좋다. 이곳은 중소규모의 교육연수를 받기에 적합니다.

어천군 부발읍 아미리 고실부락워 박병호씨(0336-32-5082)가 운영하는 청암농원에는 1백평의 회의실과 연수시설이 마련돼있어 MT하기에 적합하다. 이천군 마장면 표교리에는 모드랑산(일명 지명산 349m)과 장람리 장승마을이 있고 산기슭에 영보사라는 절을 둘러볼 수 있다.

수원 원천 유원지도 민박 집이 있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사실이 아니다.

철지난 해수욕장도 괜찮다.

서해안에 MT를 갈 경우에는 옹진군 덕적면 서로리의 장기용씨(032-886-2841)댁을 비롯한 민박촌이 펼쳐져 있어 경관이 빼어나다.

중앙선 기차를 타고 간현역에서 내려 도보로 5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 간현 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0371-46-0088)앞에서 나룻배를 타고 건너면 백사장이 펼쳐지고 야영장 및 취사장등 편의시설이 있다.

간현암엔 23개소의 바윗길이 생겨 암벽 타기를 할 수 있으며 봄부터 가을까지 잉어, 메기 등의 낚시도 즐길 수 있다. 입장료는 단체인 경우 4백원이다.

삼국유사에 속세를 떠난다는 뜻으로 지었다는 충북보은군 소백산맥자락인 속리산에서 조선시대 임금이 가마로 고개를 넘을 수 없어 말로 바꿔탄 '말티재'에서동쪽으로3㎞ 쯤가면 민간캠프시설인 상신사가 있다. 이곳은 에밀레박물관과 풍류도장, 오락시설, 숙박시설등이 있어 MT장소로 적합하다.

MT장소를 선정할 때 숙박시설을 반드시 확인해야하는데 요즈음은 4인1실 민박의 경우 하루 2만원정도 예상해야한다. 그리고 주식은 물론 밑반찬과 부식도 챙기고 세면도구와 구급의약품(소화제와 1회용 반창고)을 갖고 간다. MT장소를 직접 사진답사하는 것이 마땅직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전화로 담당자와 직접통화해 모든 것을 확인해둔다.

아무튼 MT를 통해 구성원끼리 마음 문을 열고 서로를 이해한다면 단합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가까운 경기도에도 조용하고 공기 맑은 곳이 여럿 있다. 사진은 천마산

신간안내

'한국에서 건너간…'

단순한 현대어의 비교를 통한 '언어계통연구'는 한·일간의 언어의 뿌리가 다르다는 학설을 정설화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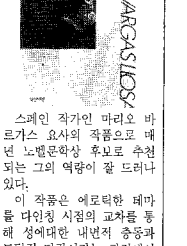
그러나 이제 기존의 연구를 확대해서 일본의 소설문고대어를 고찰하여 그를 언어의 원류 역시 우리 말임을 밝혀준 서정범(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 일본어교육) 교수가 쓴 '한국에서 건너간 일본의 신화언어'가 나왔다.

또한 이 책에서는 일본의 신화를 한국의 무속신앙과 비교하고 신들의 이름또한 어원으로 풀어봄때 일본의 산들이 한국에서 건너간 것임을 밝혔다.

마지막 부록에는 일본학자들에게도 지지를 받은 (한·일 양국에서 본 왜곡권력성의 배경)도 실려있다. 이 논문에서는 일본에서 신성시되고 있는 학설시징물에나 주변의 국가를 나타내는 단어를 분석하여 그들의 원류가 어디인지를 더욱 확실히 해주고 있다.

소설, '궁동이'

소설문학의 상상력을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 '궁동이'(원제:세엽까에 대한 찬가)가 출판됐다.



스페인 작가인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의 작품으로 대년 노벨문학상 후보로 추천되는 그의 역량이 잘 드러나 있다.

이 작품은 에로틱한 테마를 다인칭 시점의 교차를 통해 성에대한 내면적 충동과 도덕적 타락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여주인공이 마흔번째 생일을 맞아 어린 아들로부터 생일 축하편지를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야기의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글 사이사이에 삽입된 뛰어난 미술작품과 중남미 문학의 특징인 문체의 화려함을 잘살려 읽는 재미를 더해 주고 있다.

컴퓨터 통신망 다양한 사진 여행 정보 제공

자전거 하이킹 등 다양한 MT 문화 모색

의 보광사와 용미리 마애석불, 봉일천의 공슴영릉, 여재 근처의 서삼릉과 서오릉 등이 잡힌다. 이곳은 분위기가 한적하고 울창한 숲으로 싸여있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나들이하기에는 안성맞춤이다.

경기 북부지역에서 10여명이상이 민박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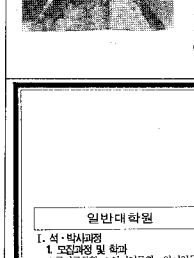
먼저 교통이 편리한 통일로변의 공봉국민관광지 옆에 자리잡은 파주군 조리면 장곡리는 체육시설까지 있어 단체이용에 좋다. 민박농가는 전화택씨(0348-945-8455)댁등 7곳이 있다.

또 고양시 도봉동 이은희씨(344-977-4203)가 운영하는 은성농원의 경우는 배구장이 있어 체력단련점 MT를 하기에 안성맞춤이다.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움을 추구한다. 다행히 좋은 장소를 발견하면 호뭇하나 입에 맞는 떡이 없듯이 헤매게된다. 그래서 인지 통신망에도 여러 곳에서 MT장소를 추천해달라는 글이 보이는데 이를 보면서 동지애를 느낀다.

조상의 얼이 서려있는 고적지, 종교시설, 민박촌, 병슴지등 이름난 곳은 많다. 그러나 교통과 주위환경, 숙박여건등이 마땅한 곳은 찾기 어렵다. 여기저기 알아보아야한다. 통신망에는 철도청에서 제공하는 열차시간표와 동행 및 수행에서 제공하는 전국에 걸친 민박안내가 소개돼 방안에서도 전국방방곡곡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이밖에도 해외여행정보나 박람회 등에 대한 정보까지 실려있어 MT나 들이에는 안성맞춤이다.

제24회 도예과 졸업전



1천2백50℃이상의 뜨거운 열기와 흙가루!

그 속에서 4여년간 열정을 다해 작품활동에 전념한 도예인들의 축제, '도예과 졸업작품전'이 오늘 그 막을 내린다.

총 41명의 작품 중 사진은 김지영작, '바라보고 싶다'.

기다림과 그리움, 동경이라는 부드럽고 융통적인 김정육 거칠고 비대칭적 구조물에 붙여 놓은 작품이다.

경희의 문화인

'경희의 문화인'은 문화의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동문 선배와 재학중인 후배가 대화를 나누는 '만남의 장'입니다.

문학·음악·미술·무용·연극 등의 예술분야 및 언론·광고·인테리어 등 광범위한 문화분야를 포괄하여 진행할 것입니다.

아울러 그 시기, 그 분야에 주요한 문제를 나눔과 동시에 장(진로)에 대한 방향성까지 모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의 계기이고자 합니다.

전공하거나 관심이 많은 경희인은 자기가 전출하고픈 분야의 만나고 싶은 선배들을 대학주보에 말해 주세요.

누구나 환영합니다. 〈편집자〉

▲사회 및 정리:이유경(문화부 기자)

▲참석자

강산에(한의예 82·대중음악인), 채용병(임학 91·탈무드회원 이하생략), 정현종(영문 93), 방종상(태권도 93), 이주희(불문 94)

▲장소

KBS 라디오 공개홀 대기실

▲일시

10월 25일 5시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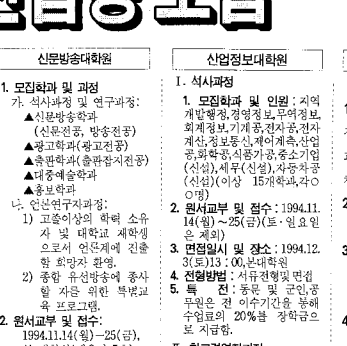
▲사회:대중문화 가운데 자국문화가 70%이상 차지하는 것은 음악뿐입니다. 또한 그 만큼 대중의 생활과 의식 속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주는 것이 대중음악의 위상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채:물론 대중은 가요를 선호하지만 외국의 팝보다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가요나 팝의 기본 음조를 분석해 보면 거의 차이가 없으며 서양의 음계가 우리 정서에 부합되어 소화된 형태가 가요인 것입니다.

김수철등의 국악과의 접목등은 의미 심장하다고 봅니다.

▲강:음악의 고유영역은 매우 독특한 것임을 이해할때 '협연'이란 말이 옳다고 봅니다. 한국적·토속적임을 내세우지 않아도 한국피를 속일 수 없듯이 숨김없고 거침없는 음악을 만들어 잘해 가장 '한국적'일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사회:대학음악과 일반대중음악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강산에와 탈무드

음악인들이 범인류적 문제에 나설 때

대학문화위해 학내 공연할 의향있어

▲강:대학생은 그 시대 정신에 맞는 그들만의 음악이 있을 겁니다. 모든 음악에 적용되지만 대학음악은 더욱 순수하고 열정적이여야 합니다. 기성음악은 변혁을 꾀할 때도 제도적 문제에 무딪히기 쉽고 가수 혼자만의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TV 출연의 문제입니다. '아부리 TV'에서 권력이 나온다는 시대라지만 가수의 외양을 트집잡는 행태는 우리나라 문화신경의 협일성과 고급적 모습의 단적인 표출입니다.

▲장:대학음악의 어려움은 학우대중과 만날 공간및 여건의 제약이 많다는 점입니다. 후원자가 전무한 상태에 1백만원가량의 공연 비용(학내공연기준)도 80%딸부도 회원의 자비로 충당되는 등 음악만을 하고자 하는데 결덤들이 많습니다.

▲강:대학시설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누려야할 대학인들이 그렇지 못한 모습 아쉽습니다. 나는 가진 것은 없으나 알려진 '이름'이 있습니다. 나의 개인 공연을 축제때 쯤 학교에서 하고 그 수익금으로 학교발전을 위해 건물을 짓거나 장학금을 지원할 의향이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상업적 음악공연이 대학내에서 공연되며 다양한 문화를 쉽게 향유할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일본문화개방에 대해서는 찬반이 분분합니다. 이에 대해 분화의 일익을 담당하시는 여러분의 견해는 어떠한 지요.

▲강:그동안의 음성적인 경로로 지급한 일본문화의 침투가 더 폐단이 많았습니다. 일본은 첨단과학문명과 전통이 팽팽한 긴장감으로 양존하는 나라입니다. 의식없는 개방도 부조건적 폐쇄도 지양해야 합니다. 문화정책을 법이나 심의 등 이미 파생된 문제에 급급하기 보다 정부차원의 문화유산에 대한 지원과 보호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방:이미 대중음악에서도 작곡과 편곡이 일본음악의 영향이 많다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사회자께서 처음 말씀했다시피 문화 분야에서 자생력이 강한 '대중음악'은 한국적이고 깊은 연구 속에 발전되어야만 합니다.

▲이:한국사회에 있어 대중음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부엇입니까.

▲강:음악은 학문이 아닌 감정의 체계이며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때 자유는 결코 평면적으로 보이는 면만이 아닙니다. 또한 가수들은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고, 범인류적 문제인 환경, AIDS, 세계평화 등을 위해 항심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기획인들도 '기획은 하나의 창조'라는 신념으로 모처럼의 '불우이웃돕기'의 좋은 의도들을 불것없는 공연으로 만드는 전례들을 더이상 남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무엇보다도 문화적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대중문화의 역할이나 위상이 정립되어가는 대로 지원은 커녕 존중치 않는 문화정책이 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995학년도 전기 대학원신입생 모집

일반대학원

I. 석·박사과정
1. 모집과정 및 학과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영어교육학 ▲중어중문학·불어불문학·서반어어학 ▲사학 ▲철학 ▲심리학 ▲정치학 ▲경지학 ▲신문광고학 ▲경제학 ▲경영학 ▲무역학 ▲회계학·사회학 ▲수학 ▲생물학 ▲지리학 ▲물리학 ▲화학 ▲가정(관리)학·의상학 ▲식품영양학 ▲산호학 ▲환경학 ▲음악공학·주부과학 ▲농학·원예학 ▲심리학 ▲조경학 ▲식품(기)공학 ▲기계공학 ▲원자력공학 ▲화학공학 ▲섬유공학 ▲전자공학 ▲전자계산공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산업공학 ▲정학 ▲행의학 ▲경의학 ▲간학·임상약학 ▲비뇨학·무용학·음악학·미술학·도예학 (▲는 박사과정 신설)
2. 원서교부 및 접수:1994.11.7(월)~10(목)
3. 시험일시 및 장소:1994.11.26(토) 오전 10시 본대학교 대학원
4. 시험과목:①석사과정-영어, 전공, 면접 ②10석사과정-영어, 전공, 면접 ③2석사과정-영어, 전공, 한자(한문에 한함)
*영어시험 면제:TOEFL 시험 550점 이상 (인문·사회·자연·이공계열), 450점 이상(예체능 계열) 최근2년이내 취득자
5. 특별전형:본 대학원 학과에 의거 특별전형 응시자로써 해당분야 지원자는 모집요강 참조(보훈자, 재외교민 해당 박사과정은 병역특례대상 기관임)

II. 학·연 겸임 석·박사과정
1. 모집학과:수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의학, 약학, 치의학, 약학(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의학, 의학(국립의과학연구원)
2. 원서교부 및 접수, 시험일시 및 장소, 시험과목은 일반과정과 동일
3. 전형방법:전공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비율은 각 1백점이며 석·박사과정을 별도 시행함

III. 연구생 과정
전학과 석·박사 과정에 약간명을 모집하며 면접만 실시, 기타 사항은 일반과정과 동일
※자세한 사항은 961-0122~3으로 문의

교육대학원

1. 모집과정 및 모집인원
가. 모집과정
(1)석사과정(▲는 신설):교육행정, 초등교육, 국민윤리, 국어교육, 영어교육, ▲일어교육, ▲중어교육, 일반사회, 역사교육, 지리교육, 수학교육, 물리교육, 화학교육, 생물교육, 환경교육, 공업교육, 통계교육, 실업교육, 전자계산, 도예교육, 무용교육, 미술교육, 체육교육.
*연구생 과정:석사과정 준용.
*지도자과정:음악·미술·음악지도자
나. 모집인원:각 과정 ○○명
2. 지도자과정
가. 석사 및 연구과정:
*원격교육 대학 준용과 및 졸업예정자
*교육부훈령에 의해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타전문 분야자는 지원자격을 부여 한다(단, 일반계 소정의 전공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대학에서 부차적으로 이수한 전공 및 교육심리에서 심화과정으로 이수한 전공분야는 해당전공에 지원 할 수 있음
*주간학교 2급 정교사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는 교육과정선정위원회에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지도자 과정:음악(바이올리학원 연주학원, 통기타·음악원 경영학 및 한국전자음악학원 다소지자 지원가능)
3.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가. 원서교부:1994. 11. 7(월)~18(금), 본대학교 교무과
나. 원서접수:1994. 11. 14(월)~18(금) 17:00 본대학교 교무부
4. 전형방법
가. 석사과정:
(1)본고사(단, 3년이상 교원경력은 가산 혜택)(2)면접 및 교육자로 적합성의 가중치는 거는 전공시험 면제, 서류전형)
(2)전시실
나. 연구 및 지도자 과정: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5. 시험일시 및 장소:1994. 11. 26(토) 10:00 오전중 시험일 면접실시
※자세한 사항은 961-0135~6으로 문의

행정대학원

1. 모집과정 및 학과
가. 석사과정:▲행정학과:정책학, 행정관리 ▲안보정책학과:안보정책 ▲의료행정학과:간호행정, 병원행정 ▲도시행정학과:도시행정, 지방행정 ▲환경행정학과:환경행정 ▲사법행정학과:사법행정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 ▲보험행정학과:보험행정학과
나. 연구과정:최고정책과정, 의회지도자 과정
2. 원서교부 및 접수
1994.11.14(월)~25(금)
3. 시험일시 및 장소
1994.12.3(토)
오후2시 본대학원
4. 시험과목:▲석사과정-필기시험(행정일반이론 및 각 전공 기초분야), 면접 및 경력 ▲연구과정:최고정책과정 및 의회지도자 과정-서류전형 및 면접
5. 특전:현역군인, 국가공무원, 간호사, 본 대학교 동문은 수업료 20% 장학금 지급
※자세한사항은 962-1213,0131로 문의

경영대학원

1. 모집과정:석사학위과정 및 연구과정, 최고경영자과정
2. 모집학과 및 전공
*경영학과(인사관리, 마케팅, 생산관리, 회계학, 재무관리, 국제경영 전공)
*세무관리학과(세무관리, 세무행정, 조세정책, 조세법학 전공)
*노사인력관리학과(인력자원관리, 노무관리, 노동정책, 노사관리, 노동정책 전공)
*관광경영학과(관광사업개발, 호텔경영, 관광홍보, 시설경영 전공)
*산업안전관리학과(산업안전공학, 산업안전관리, 산업안전행정 전공)
*무역경영학과(무역경영, 무역정책, 무역관계법, 국제경제 전공)
3. 모집인원:
*석사과정:100명 내외
*연구과정:약간명
*최고경영자과정:50명 내외
4. 원서교부및 접수:1994.11.14(월)~11.28(월)16:00까지(공휴일 제외)
5. 시험일시:1994.12.3(토) 14:00
6. 시험과목:
*석사학위과정:일반논술, 면접
*연구과정 및 최고경영자과정:서류전형, 면접
7. 특 전
*각종국가고시 최종합격자는 전이수기간 수업료의 50% 장학금 지급
*수석합격자와 재학중 성적우수자는 수업료의 30% 장학금 지급
※자세한 사항은 961-0127, 962-9688로 문의.

공학복지대학원

1. 모집학과 및 전공:정보안보학과, 공업이학과, 국제 및 정책학과, 국제경영학과, 사회복지학과(석사과정 2년6개월 야간반)
2. 입학자격:국내외 대학(교)의 학사 및 석사학위를 받은 자와 동예정자
3. 전형방법:①영어시험 및 논문(국문) ②2차면접—①항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③2차면접 및 체력검사—②항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4. 장학제도:▲제학중 학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함 ▲기숙사(三星舍)숙식에 필요한 숙식장학금을 지급함
5. 주지사항:•본 대학원은 아시아태평양시대를 맞아 평화지향적인 국제사회의 유능한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함 •본 대학원은 1963년에 교육기관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UNESCO평화교육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음 •국내 및 국제사회의 저명한 교수가 강의하며 강의는 영어로 함을 원칙으로 함 •전공과목에 따라 정치학, 경영학, 행정학 석사학위를 수여함 •본 대학원은 최적의 교육환경과 현대적 시설을 보유 •전간적 인격도야를 위해 입학후 4학기 동안 아태지역사회에서 생활하여야 함
6. 원서교부 및 접수:1994. 11. 7(월)~18(금) 본대학원(경기도 광릉)
7. 전형기간 및 시험장소:1994. 11. 23(수)~30(수), 본대학원
※자세한 사항은 (0346)556-7621~8로 문의

신문방송대학원

1. 모집학과 및 과정
가. 석사과정 및 연구과정:
▲신문방송학과
(신문전공, 방송전공)
▲광고학과(광고전공)
▲출판학과(출판잡지전공)
▲대중예술학과
▲홍보학과
나. 연구과정과정:
1) 고졸이상의 학력 소유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연구과에 진출할 희망자 환영.
2) 종합 유선방송에 종사할 자를 위한 특별교육 프로그램.
2. 원서교부 및 접수:
1994.11.14(월)~25(금), 본 대학원(체육관 5층) 교무과
3. 시험일시 및 장소:
1994.12.3(토) 오후2시
(본 대학원 체육관 5층)
4. 시험과목
가. 석사과정:전공, 면접
나. 연구과정 및 연론연구자과정:서류전형 및 면접
(경력참조)
5. 특 전:언론계 종사자 중 우수 경력자에 한하여 특전을 부여함.
※자세한 사항은 961-0560~1로 문의

산업정보대학원

I. 석사과정
1. 모집학과 및 인원:지역개발행정,정영정보,무역경보,회계정보,기계공,전자공,전자계산,정보통신,제어계측,산업공,화학공,식품가공,중소기업(신설),세무(신설),자동차공(신설)(이상 15개학과,각○명)
2. 원서교부 및 접수:1994.11.14(월)~25(금)(토·일요일은 제외)
3. 면접일시 및 장소:1994.12.3(토)13:00,본대학원
4. 전형방법:서류전형및면접
5. 특 전:동문 및 군인,공무원은 전 이수기간을 통해 수업료의 20%를 장학금으로 지급함.

II. 최고경영자과정
1. 모집인원:○○명
2. 지격:공·사기업체의 최고경영자 및 임원직무 및 유관기관의 간부, 개인사업자, 기타 사회단체의 간부 등(학력제한없음)
3. 원서교부 및 접수:1994.11.14(월)~30(수)(토·일요일 은제외)
4. 전형방법:서류전형및면접
5. 면접일시 및 장소:1994.12.10(토)13:00,본대학원
※자세한 사항은 서울(02)745-5889, 수원(0331)280-2130~1로 문의

체육과학대학원

I. 석사과정
1. 모집과정 및 학과:석사과정 및 연구자과정-체육과학과, 사회체육과, 경기지도과, 체육산업경영과(각 00명)
2. 원서교부 및 접수
1994.11.14(월)~25일(금)
3. 시험일시
1994.12.3(토)
오후 2시 본대학원
4. 시험과목:전공및 면접

II. 최고체육지도자과정
1. 모집인원 및 응모자격:체육유관기관과 고급관리자, 사회체육지도자, 기타 대학원장이 적격자로 인정하는 자(00명)
2. 원서접수 및 시험일시
석사과정과 동일함
※자세한 사항은 961-0770~1로 문의